

# “碧眼에 비친 미륵세계는 ...”

### 힐트만교수 ‘운주사 천불천탑’ 펴내

“땅에서 자라난 것 같은 농부의 심성을 담은 미륵석불과 하늘로 오르려는 석탑의 형상미. 토막논들 사이 군데군데 불상과 탑들이 세워져 있고 바로 그 옆에서 농부들이 일하고 있는 운주사 옆 만산계곡의 정경을 처음 대하고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시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 《미륵-운주사 천불천탑의 용화세계》(이경재·위상복·김경연 譯, 학교재 刊)의 저자 힐트만교수(32·독일 함부르크 미대)는 운주사 천불천탑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이렇게 회상했다.



힐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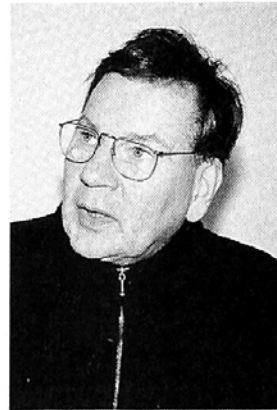
### 천불천탑서 문명위기 탈출대안 찾아

#### “전생애 한국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미륵-운주사...》에서 1백여장의 아름다운 흑백사진과 함께 자신의 예술론을 진지하게 펼치고 있는 힐트만교수는 “전생애 한국 스님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전생을 찾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천불천탑이 현대 산업사회의 위기에 대한 예술적 대안임을 발견한 그는 운주사 천불천탑을 신앙과 예술과 생활이 절묘하게 결합된 공간으로 파악한다. 즉 “노동과 소유와 유용성이 녹아있는, 생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룬 엄숙한 장소”라는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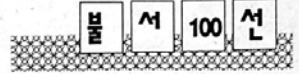
명이다. 또한 힐트만교수는 만산계곡의 불상과 탑에는 용화세계(龍華世界)를 꿈꾸는 민중들의 소박한 열원이 담겨있다고 해석한다.

독일학단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서양화가 송희숙씨와 결혼한 힐트만교수는 지난 85년 처음 내한했다. 천불천탑을 보고 첫눈에 한국의 불교 문화에 반한 그는 이듬해 교환교수로 다시 한국을 찾았고 운주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 87년 《미륵-한국의 성스러운 돌들》이란 책을 독일에서



김재경 기자

### 명사추천



### 한국의 불화

불교미술에 관심있는 신자가 아니라고는 사찰에 모셔진 불상과 불화를 보면서도 짐작 그것이 무슨 불상이고 무슨 불화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불화는 불상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바로 문명대교수(동국대)의 《한국의 불화》(열화당 刊)이다. 중견학자인 문명대교수는 일찍이 석굴사원과 불교조각에 대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회화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구를 병행하여 왔으며,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원에 재학하던 1980년으로 기억한다. 미술사를 공부하려고 진학했지만 많은 분야 가운데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무렵, 우연히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화라고 하면 수업시간에 들었던 고려불화 정도였고 그것도 수박겉핥기식으로 어렵게 알고 있었던 나에게 이 책은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책을 읽어가는데 나는 점점 불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전혀 초면이었던 교수님을 찾아가 불화를 공부하겠다고 감히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문교수님의 지도학생이 되었고 그때의 인연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희 (원광대 교수·고고미술사)

### 시대별 불화양식 심층 분석 ‘불화란 무엇인가’ 해답 제시

이 책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불화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불화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불화의 기원, 용도, 주제, 불화의 제작 방법, 우리나라 불화양식의 변천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불화의 주제에 대한 장(章)에서는 전각에 봉안된 불화가 어떠한 신앙 배경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불화 안에 표현된 권속(眷屬)들은 누구이며 왜 그곳에 표현되었는가 하는 문제들을 정경과 신앙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 불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불화양식의 변천을 다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불화가 삼국시대에 불교의 전래와 함께 수용되어 고려시대에 이르러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민중의 불사(佛事)로서 크게 발전하였음을 밝혔으며, 각 시대별로 독특한 불화 양식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화승(畫僧), 즉 불화를 그리던 승려화가들에 대해 주목하여 이후 불화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불화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어 많은 연구자가 배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불교회화가 미술사의 중요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지금도 나는 이 책을 가까이 두고 학생들과 인연있는 사람들에게 일독(一讀)을 권하곤 한다. 보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불교회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며, 특히 불교신자들이 좀더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 “왜군 지옥사자처럼 잔악했다”

#### 신용태교수 ‘임진왜란 종군기’ 번역

임진왜란 당시 생지옥과 같은 비참한 광경을 직접 보고 사실대로 쓴 일본스님의 일기가 국내에 처음 번역, 출간돼 관련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국대 신용태교수(일어일문)가 역주(譯註)한 《임진왜란 종군기》(경서원 刊)가 그것. 일본 안양사(安養寺) 주지였던 케이넨(慶念)스님이 정유재란(丁酉再亂)때인 1597년 6월 24일부터 이듬해 2월 2일 사이 류우슈우(柳州) 우스개성(牛土城) 성주인 오오타 히슈우(太田飛州)의 군의관으로 조선전장에 종군하면서 기록한 일기를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원제목이 《일일기(日日記)》인 이 책은 안양사에 소장되어 있던 원본을 편자인 오가야마 나이프로 순번(内藤橋本)교수가 일본 조선학회에서 발견하는 《조선학보》 35집(1961)에 해설과 함께 발표한 것을 신용태교수가 제목을 바꿔 36년간에 처음 번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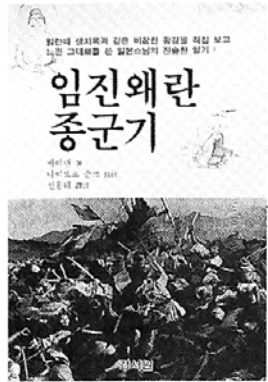
대체로 살인 악탈 방화 인신매매 등



#### 정유재란 참전 日스님의 참회록 살인 악탈 방화등 적나라하게 기록

7·7조의 일본 정형시(正形式)로 옮겨가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는 등 불심을 바탕으로 한 수행자의 감회기 시기와 산문으로 엮여져 있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케이넨스님의 지극한 불심이다. 육십 노구를 이끌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오직 종교적 양심으로 부처님께 용서를 빌면서 읊소(泣訴)하는 정황을 일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본



군의 잔악함은 마치 지옥의 사자가 죄인을 잡아 다루듯 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도 지극한 불심에서 우러나온 양심의 가책에 기인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토요타미 히데요시(豊田秀吉)의 제2차 조선침략의 숨겨진 일면, 즉 이 조선 침략이 당시 대다수 일본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재)

### 출판소식

### “佛光洞은 부처님 서광의 땅”

#### 향토사학자 이성영 翁 ‘...은평이야기’ 출간



최근 서울 은평구 각 동네의 지명유래와 명소를 상세히 소개한 책 《재미있는 은평이야기》(도서출판 민 刊)를 펴낸 향토사학자 이성영 翁(73)은 불광동이 고려 초 현종때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가진 동네임을 자랑한다.

“불광동(佛光洞)이란 이름이 부처님의 서광이 항상 서려있다는에서 유래했다”는 이성영은 “그래서인지 교회가 불광동에 들어선 것도 최근의 일”이라고 말한다.

13대째 서울에 살고 있는 토박이 향토사학자로서 할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의 구전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펴낸 이성영은 6백50년 동안 불교를 믿어온 불교집안의 후손.

《화성의 얼》 《화성의 효》 향토자료집 2권 발간

화성문화원(원장 천광인)은 최근 향토자료집 《화성의 얼》과 《화성의 효》를 동시에 발간했다.

《화성의 얼》은 각 면의 지명유래와 유적 유물을 상세히 기록했으며 50여가지의 전설을 수록했다. 《화성의 효》는 효와 관련한 전설과 ‘경로호친 선양 글짓기 대회’ 금상 작품들을 수록했으며 부록에 《부모은중경圖》를 실었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썩기 아니다	혜 인	여시아문
2	생환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4	종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5	삼승소식	명 성	극락선원
6	도솔전에서 만남시다	장 순용	세계사
7	그까지 살 썩으면 어때	학 립	여시아문
8	유식입문	이 지수	시공사
9	책 이야기	일 지	운주사
10	믿음으로 피운 연꽃	천 태종	열린불교

구입문의: (02)737-0696

### 새로나온 책...

▲태양처럼 솟아나소서(성우스님 지음)=과거사 주지 성우스님이 쓴 입산부가 부처님께 올리는 발원문집. 한 생명을 잉태하고부터 입산부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며, 부처님께 기원하는 글이다. 스님은 이 땅에 슬기롭고 복덕이 구축한 많은 이들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며 이 글을 썼다. (토방, 4천원)

▲정병조의 불교강좌(정병조 지음)=기존 입문서와 같은 단

기어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규장각 1만2천원>

▲빛을 가진 아이들(이가을 지음)=서울 한강근교에 있는 동편초등학교 4학년 발간 아이들과 ‘검은 별(우한별) 선생님, 교장선생님 등이 엮어가는 참교육 이야기. 제1회 조계종 불교문학 현상 공모에서 동화를 당선시킨 이동문학가 이가을씨가 쓴 동화책. <대원사 4천5백원>

▲일본인의 백제문화(임동권 지음)=일본의 문화를 한국민속학의 관점에서 현지조사한 연구서. 임동권 중앙대 명예교수(71·문화재위원)는 고대 백제인들이 일본에 건너가 불교 문화를 비롯, 문화 예술 학술 농경 의학 등 제반 기술에 큰

순한 교리설명이거나 해설보다는 저자 나름의 철학적 사고로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특색. 불교사상의 정리와 함께 21세기에 맞는 불교의 역할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민족사 6천8백원)

금강경 도서 독송회 출판 **이해이시** 전화)02-742-0172 팩스)02-766-9305

**마음공부베스트 4**

**그 마음을 바쳐라**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해야 하나?  
무명(無明)에 떨어진 모든 부처님들의 발(發)!  
아늑다라삼삼보리심을 위하여.  
김재웅 법사 지음 신국판/267쪽/7,500원

**뉘는마음 밝은마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길 가는 모든 이(道)인들의 고통과 해탈을 위하여.  
김재웅 법사 지음 신국판/293쪽/6,000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 지음 신국판/273쪽/6,000원

**분별은 바치고 마은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 독송회 엮음 신국판/260쪽/6,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송필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화/제/의/신/간/  
운명의 카운트 - 다운 시대가 왔다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운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국판/값20,000원

**관음출판사**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